

호남, 5대 권력기관장 DJ·노무현 정부 빼면 사실상 '제로'

역대 정권 인구 대비 고위직 출신 지역별 분석해보니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지역별 분류한 결과 영남지역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정부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정부직 공무원에서 영남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영남지역 인구의 비율보다 높았던 때는 이승만 정부

와 김대중 정부였다. 국정원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이른바 정부 권력기관장과 청와대(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정부직도 인구 대비 영남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김대중 정

부에서만 차관급 이상 정부직과 권력기관장, 청와대 정부직의 호남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이상 정부직, 영남 편중 현상 심해>=김영삼 정부와 전두환 정부 때 영남출신 비율이 각각 43.7%, 4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때 37.17%, 박근혜 정부 36.84%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때도 36.

이승만·DJ 정부 빼곤 영남, 인구비율 보다 높아

이승만 정부때 0%였던

영남 출신 靑비서관

전두환 정부때 50%대로

42%로 영남 출신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호남 출신 비율은 김대중 정부에서 29.82%, 노무현 정부에서 27.16%로 높았을 뿐 나머지 정부에서는 10% 초반대 수준에 그쳤다. 인구 비율을 따져 봤을 때 역대 정부 중 두 정부에서만 호남지역 출신의 차관급 이상 진출이 두드러졌다. 대부분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보였지만, 김대중 정부(4.58% 포인트), 노무현 정부(2.74% 포인트)때 플러스 값을 보였다. <호남 출신 5대 권력기관장 '0'>=역대 정부 중 김영삼 정부 때 이른바 권력기관장의 영남출신 비율은 84.62%로 최고를 기록했다. 사실상 독식인 셈이다. 노태우 정부 때 78.57%였고, 이명박·최규하 정부 때 6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도 영남출신 비율은 50%를 유지했다. 영남출신 권력기관장 비율과 영남지역

■역대 정부별 권력기관장 지역별 출신비율

(국정원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단위: %>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기타
이승만 정부	8.33	8.33	16.67	0	0	0	0	66.67
윤보선 정부	0	0	0	0	50.00	0	0	50.00
박정희 정부	4.76	4.76	38.10	0	19.05	0	4.76	28.57
최규하 정부	0	0	66.67	0	0	33.33	0	0
전두환 정부	7.14	0	50.00	14.29	7.14	0	0	21.43
노태우 정부	0	0	78.57	0	7.14	0	0	14.29
김영삼 정부	7.69	0	84.62	0	0	0	0	7.69
김대중 정부	6.25	0	18.75	50.00	12.50	0	0	12.50
노무현 정부	5.56	0	38.89	33.33	5.56	11.11	0	5.56
이명박 정부	11.11	0	66.67	0	22.22	0	0	0
박근혜 정부	40.00	10.00	50.00	0	0	0	0	0

인구비율 간 차이가 가장 컸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65.20)와 노태우 정부(57.56)였다. 영남지역 인구를 고려했을 때 권력기관장이 적게 배출된 때는 이승만(-5.63)·김대중(-12.68) 뿐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호남 출신 권력기관장은 김대중·노무현·전두환 정부에서 제외하고는 '0'(제로)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호남 출신 비율은 50%, 노무현 정부에서는 33.33%였다. 충청 출신은 윤보선 정부때 50%였다가 박정희 정부에서 19.0%를 차지했다. 전두환 정부 때 6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김대중 정부때도 12.5%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2.22%까지 올랐다. <청와대 정부직도 영남 출신 독점=전

두환·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주요 부서 정부직 중 50% 이상은 영남 출신이었다. 역대 정부 중 전두환(57.14%)·노태우(56.67%) 정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45%), 박근혜 정부(44.68%), 노무현 정부(40%), 김영삼 정부(39.47%), 박정희 정부(32.26%), 김대중 정부(17.14%) 순이었다. 이승만·윤보선 정부 때는 0%를 기록했다. 호남 출신은 김대중 정부 때 48.57%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2.5%였다. 박정희 정부(6.45%)와 노태우 정부(3.33%)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나머지 정부에서는 10%대 수준을 유지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연일 '박대통령 자진 하야' 군불때기

야권 "반응할 가치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권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이다. 이는 현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이 명백한 만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부정적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정치권 전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국

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름 전에 정치적 타격을 최대한 해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 탄핵 결정 후의 후폭풍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 후에 우리가 국론분열 내지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의 정치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야론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심하게 표현하면 내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국론 분열이 심각할 테니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노력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현재 심판이나 특검 수사 등 사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자진 하야론에 냉랭한 반응을 보여 정치권이 정치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워킹맘·천재예술가...시대 초월한 '이상형'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6) 사임당

천재는 자신의 시대를 초월하는 사람이지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시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때는 현모양처의 상징이었다가 현대에 와서는 워킹맘으로서, 천재예술가로서 재해석되고 있는 신사임당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다. 오백년을 건너서도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형으로 여겨지니 말이다. 드라마 '사임당'을 두고 매체들에서는 기대 이하 호응도로 시청률 부진을 염려하지만, 내겐 분방수수를 다짐하게 할 만큼 애착이 크다. 사대부 지식인들로부터 조선왕조 최고의 산수화가로 꼽

히는 안전 다음 가는 화가라는 평가와 유교 경정의 깊은 소양, 자녀교육과 집안일도 살뜰히 챙겼던 사임당. 그녀의 활약을 부러워하며 드라마에 빠져들게 하는 수·목 이를 밤이 기다려진다. 신사임당(1504~1551)은 시서화에 뛰어났는데, 산수화, 노안, 포도 그림에 능했으며 특히 초충도로 유명했다. 조선시대의 모든 초충도는 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었고 화풍이 지닌 고상한 품격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방했다고 한다. 수박을 갈아먹고 있는 생쥐들의 모습을 귀엽게 그린 '초충도'(수박과 생쥐)는 재미있는 주제의 포착, 수박씨의 유머러스하고 정감 넘치는 묘사, 패랭이꽃과 나비의 아름다운 색채 감각이 돋보인다. 나뭇가리는 수박의 큼직한 이파리에도 생기가 넘치고, 이러한 광경을 숨죽이며 사생했을 사임당의 고운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미술사학자 안휘준은 저서 '한국미술의 역사'에서 "사임당의 그림은 유교



신사임당 작 '초충도'

적 미의식의 확립으로 과장과 허세를 피하고 진솔하고 소박한 조선 초기 회화의 특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사임당의 초충도는 아들 율곡에게도 남편 이원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능력있는 아내에게 기를 피우지 못했던 남편 이원수도 집에 손님이 오면 아내의 그림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학자>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